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2018년 성장률의 관건 ▶ 건설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까?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막무가내식 압박으로 인한 FTA 재협상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휴 후 가파른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도체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가파른 기업실적 개선과 주가의 상승은 기업실적만큼 분명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내년 우리나라 경기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기업실적의 개선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보다는 뚜렷하게 개선될까? 아니면 올해처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며 애매한 모습을 반복할까? 아직 올해가 두 달 넘게 남아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올해 성장률보다는 내년 성장률에 쏠려 있고,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자료가 쏟아지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되는 2.8%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관건은 ‘둔화될 건설 부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2018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고 올해와는 좀 다른 경기 흐름을 보여 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되는 2.8%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항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경제지표의 모멘텀이나 체감하는 경기는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은 우리만의 견해는 아닌 듯하다. 아직 주요 예측기관들의 구체적인 경제 전망치들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 흐름과 언론보도들을 토대로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전망기관별로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에서 3%대 초중반까지 분포돼 있지만 올해 2% 후반을 전망하는 기관은 내년에도 2%대 후반을 전망하고 올해 3% 수준을 전망하는 기관은 내년에도 3%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멘텀 측면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내년에도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 모멘텀보다는 기업 부문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둔화될 건설 부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관리한 이전 정부들과 달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만큼 부동산 부문(GDP 항목에서는 건설투자 부문)의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기류는 8.2 대책을 필두로 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나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억제 대책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보다 뚜렷하게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SOC 관련 예산은 연평균 7.5% 줄이는 반면 보건·고용·복지 예산은 연평균 9.8%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2018년 SOC 관련 예산은 20% 가량 줄일 계획이다. 각종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자 억제와 함께 직접적인 정부의 지출 자체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 Economist

정용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박옥희

02) 6915-5672
marble@ibks.com

안소은 (RA)

02) 6915-5657
ase331@ibks.com

본 조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낮은 금리나 여전한 대기수요 등 감안시 건설투자 연착륙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성장률과 관련해서 건설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

물론 우리는 내년 건설투자 또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 경착륙을 전망하지는 않고 있다. 기수 주한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착공되면서 하락을 완화시키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높은 분양 열기를 보여주는 강남재건축 뉴스 등에서 보듯 대기수요도 여전히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연착륙 수준은 국민계정 내 건설투자 기준으로 1~2% 수준이며 올해 예상되는 5~6% 대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동안 우리경제 특히 단기적인 성장률과 관련해서 건설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부문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는 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중을 줄여오는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 2012년 이후 비중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부문의 성장기여율은 2015년 4/4분기 이후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건설투자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7%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든다.

소비가 이 공백을 메우지는 못할 듯 ▶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반면 건설고용 축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인데 GDP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부문이 이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이 지표는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아직 우리 경제 구조가 수출이나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가계 소비 여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구조 변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그리고 공공부문 고용 증가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정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는커녕 아직 국회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은 빨리 반영된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투자 둔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 동안 건설부문의 성장 기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은 여러 부문에 그 영향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용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율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등 요인 중 중요한 부분이 건설 관련 부분이다. 올해 2/4분기 건설업의 취업자 증감 기여율은 40%를 넘어섰다. 건설부문의 취업자가 상당부분 임시직임을 감안하면 건설부문의 위축은 그대로 고용시장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소비에 바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비투자가 이 대안이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기본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비중이 건설부문의 절반 수준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수요개선이 눈에 보이게 확연히 드러난 IT 부문을 제외하면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기 위한 기업들의 확신이 아직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서 조사하는 서베이를 보면, 수요부진이나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고 과잉설비의 존재나 더 나아가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하청 등을 통해 외주화하려는 구조적 변화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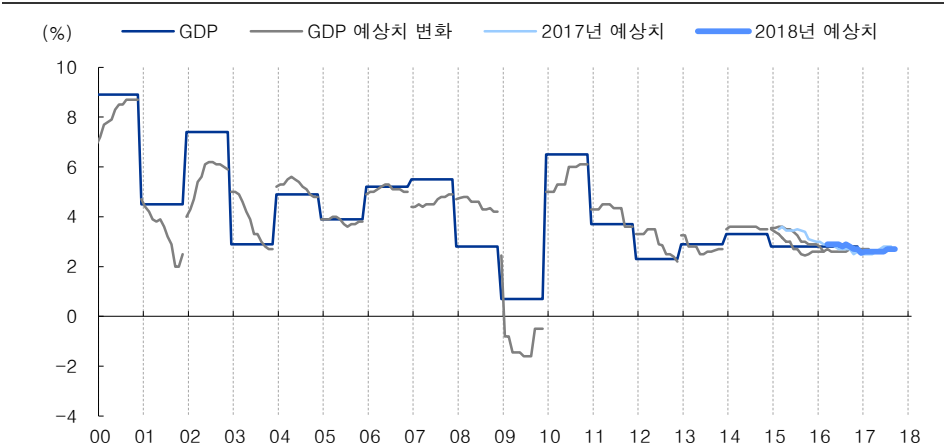
결국 내년에도 우리 성장률은 수출의 선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
▶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 증가와 크게 높아진 수출 경쟁력에 기인 ▶
문제는 수출이 선방하며 성장률은 유지하겠지만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경제

결국 내년에도 우리 성장률은 수출의 선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부문의 공백도 메워야 하는 만큼 올해보다 기여도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출과 관련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글로벌 수요가 올해만큼은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IMF의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 전망이나 주요 예측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수준의 증가율은 유지될 것으로 나온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T부문이 중심이 되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출 경쟁력을 입증해 줬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수입 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보면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수입 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높아져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통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오롯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통상압력 강화와 같은 여러가지 마찰적 요인을 극복하는 동인될 것이다. 다만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를 높으려면 수출 물량의 증가는 더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올해 높은 수출 금액 증가율은 대부분 반도체 가격을 위시한 수출 단가의 상승에 기인하기 때문이고 수출 금액 증가와 달리 순수출 기여도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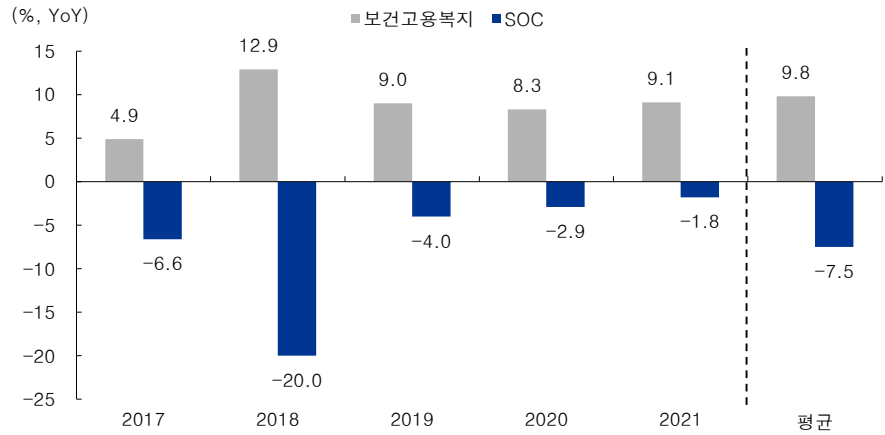
한편, 수출이 선방을 하면 내년에도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겠지만 우리 경제의 내적인 격차는 여전히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IT 등 몇몇 업종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하면 일부 산업에 의한 경제지표의 휘둘림이나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식시장의 쏠림 등 투자환경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1.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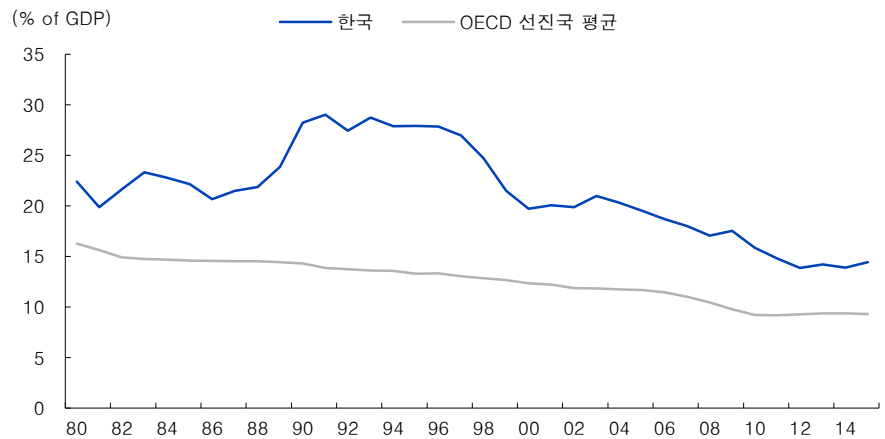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보다 뚜렷하게 이전과 다른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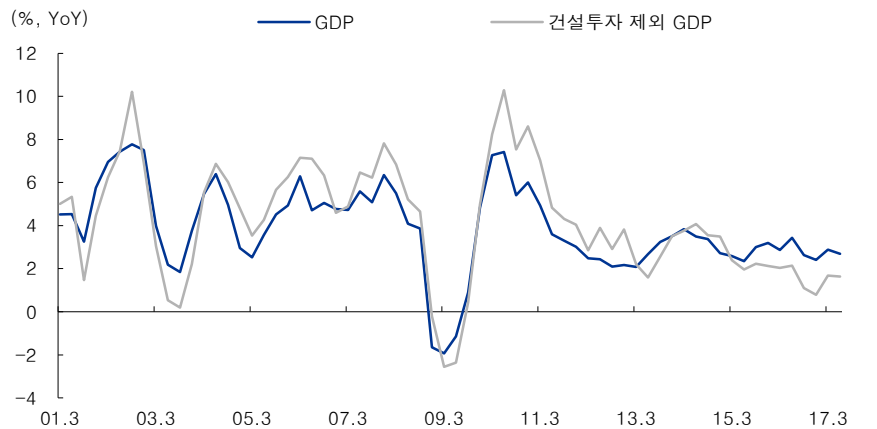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IBK투자증권

그림 3.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부문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는 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중을 줄여오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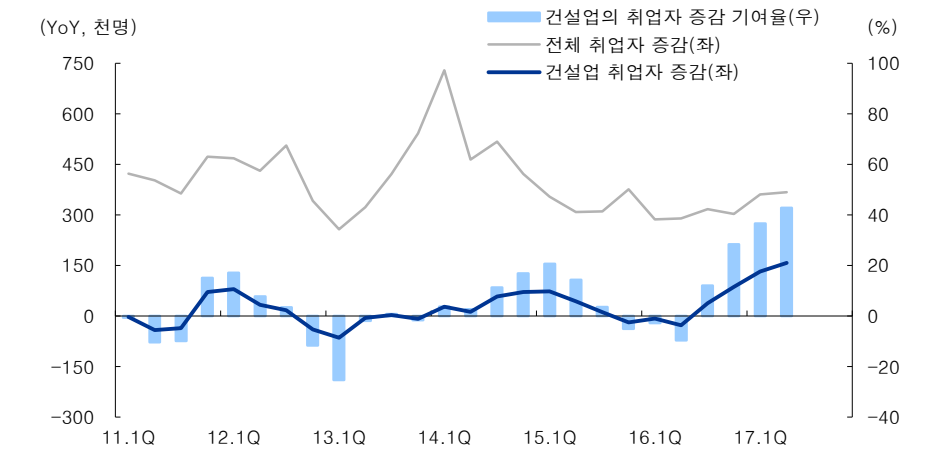
자료: OECD, IBK투자증권

그림 4.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건설투자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7%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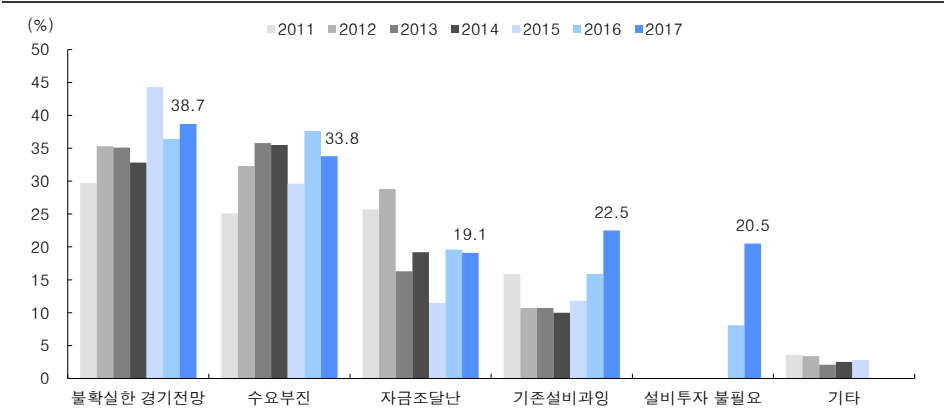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5. 건설의 성장 기여도 만큼 크게 늘어난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 기여율 ▶ 취업자가 상당부분 임시직임을 감안하면 건설부문의 위축은 그대로 고용시장에 전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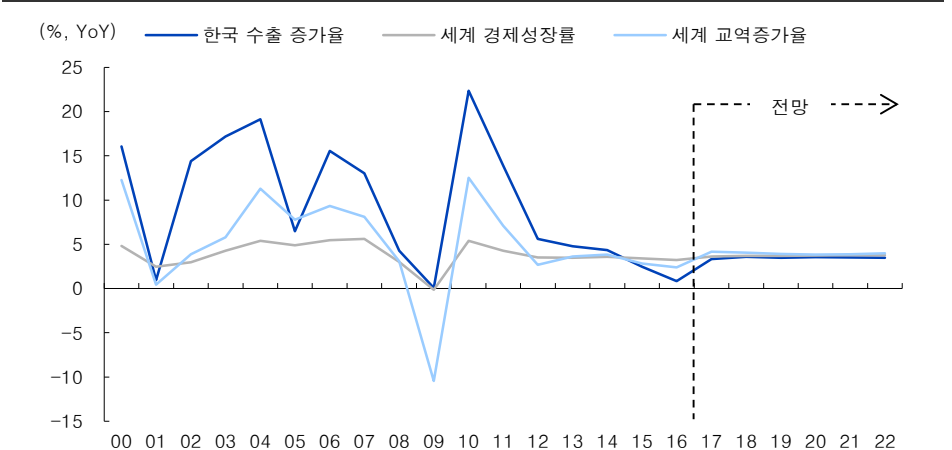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그림 6. 국내 기업 설비투자 부진 요인 ▶ IT부문을 제외하면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기 위한 기업들의 확신이 아직 부족해 보임



자료: 산업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7.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올해만큼은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



자료: IMF, IBK투자증권

그림 8.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의 경쟁력 증가 → 세계 수입 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큰 폭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아져 있음은 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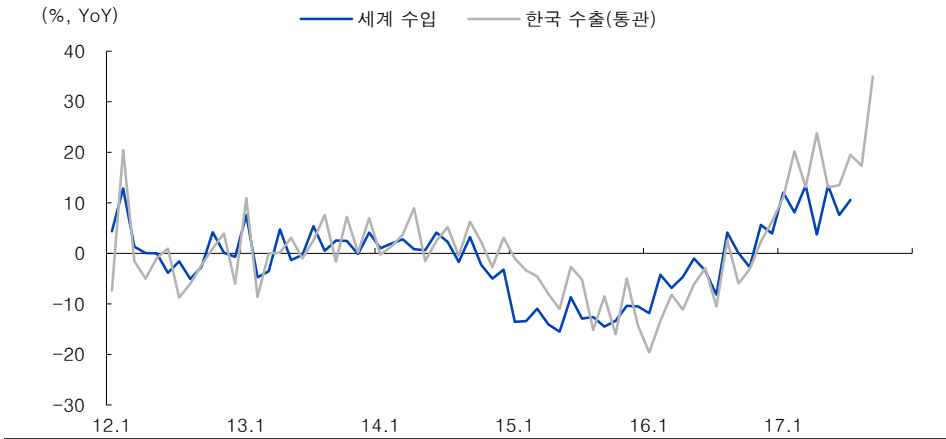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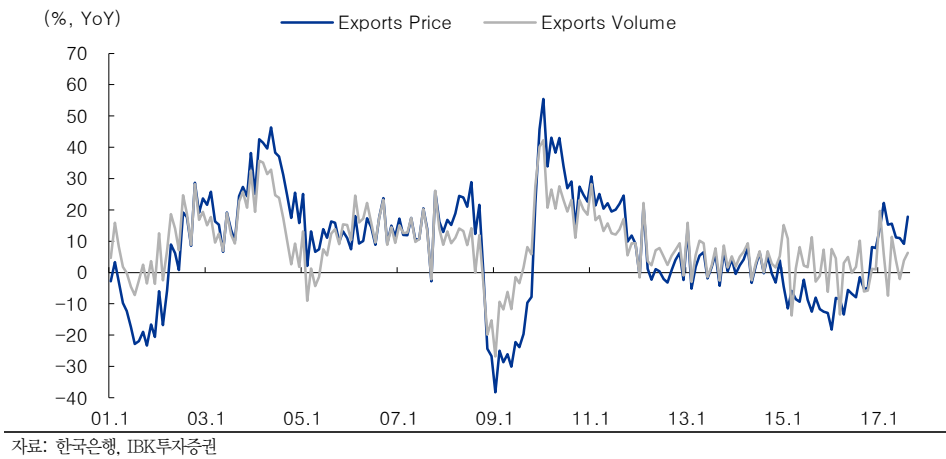


그림 9. 다만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를 높이려면 수출 물량의 증가는 더 뒷받침 될 필요



Weekly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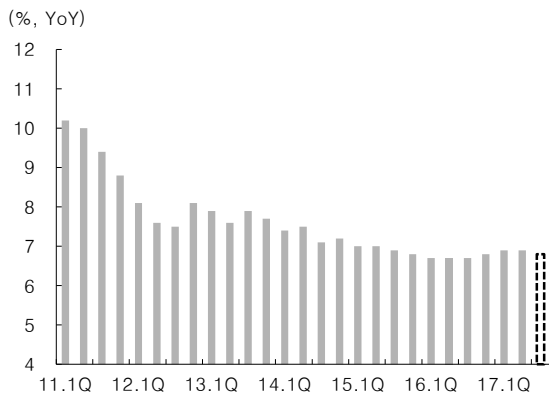
다음주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음. 중국에서 9월 실물지표가 다수 발표되는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주택과 일부 비철금속 가격이 악화되면서 상승률이 지난달과 비슷했을 것으로 전망. 중국 9월 소매판매와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시장 약화, 제조업 구조조정, 디레버리징 정책 등으로 지난달에 낮아진 증가율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9월 광공업생산은 연말 쇼핑시즌 준비 효과로 증가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 미국에서는 9월 광공업생산이 발표되는데 지난 8월 허리케인 타격으로 유틸리티 중심으로 감소한 뒤 증가 전환했을 것으로 전망. 9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기존주택매매 등도 발표되는데 허리케인과 건설자재값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피해 복구로 인해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도 나오는데 미국중시 상승과 제조업주문 증가에도 허리케인에 따른 실업수당청구 증가로 상승률이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 유로존에서는 10월 ZEW 경기전망이 발표되는데 ECB의 테이퍼링 우려와 독일 연정 구성 불확실성 등으로 반락했을 것으로 예상.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관심.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10.13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6%	0.4%	허리케인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상승폭 확대 예상
	미국	9월	소매판매 MoM	1.7%	-0.2%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주유소 판매 중심으로 크게 확대 전망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95.0	95.1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보험권에 머물 전망
10.16	중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1.8%	에너지값 상승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 약화로 낮은 수준 유지 예상
	중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6.4%	6.3%	에너지값 상승했으나 일부 비철금속 하락하며 전월 수준 유지
10.17	유로존	10월	ZEW 경기전망	-	31.7	ECB 테이퍼링 우려와 독일 연정 구성 불확실성으로 반락 전망
	미국	9월	광공업생산 MoM	0.3%	-0.9%	허리케인 타격으로 감소 전환한 뒤 영향 완화되며 반등 전망
10.18	미국	9월	주택착공 MoM	0.0%	-0.8%	허리케인 영향으로 주택착공 부진한 흐름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
	미국	9월	건축허가 MoM	-3.3%	3.4%	기저효과로 감소했지만 향후 허리케인 피해 복구로 증가 전망
10.19	중국	3Q	GDP YoY	6.8%	6.9%	중국 당국의 구조조정 및 규제 정책으로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중국	9월	소매판매 YoY	10.1%	10.1%	각종 규제 및 구조조정이 부담이나 국경절 앞두고 소비 확대 전망
	중국	9월	도시 누적 고정자산투자 YoY	7.7%	7.8%	부동산 약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 증가율 약화 예상
	중국	9월	광공업생산 YoY	6.5%	6.0%	연말 쇼핑시즌 준비로 생산 증가율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MoM	0.1%	0.4%	중시 상승과 제조업주문 증가에도 고용 부진으로 상승폭 축소 예상
10.20	미국	9월	기존주택매매 MoM	-0.9%	-1.7%	주택 재고 부족한 영향으로 감소세 이어졌을 전망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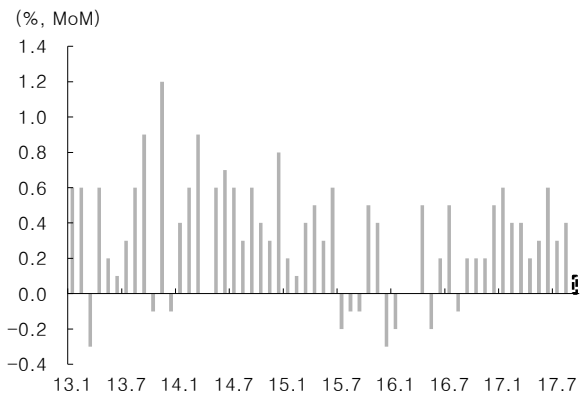
날짜	국가	이벤트	비고
10.18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	허리케인과 자산 채투자 축소 시작에 따른 경기 판단에 관심
10.19	한국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는 현행 1.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정 경제전망에 관심

중국 3분기 GDP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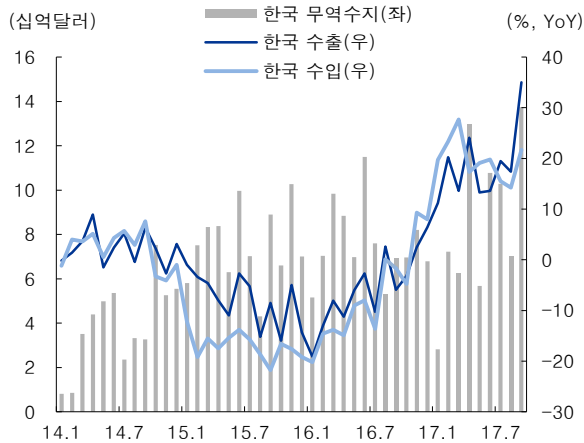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Weekly Review

한국 9월 수출 YoY 35.0%, 수입 21.7%, 무역수지 137.5억달러

예상치 19.8%, 13.0%, 106억달러 / 이전치 17.4%, 14.2%, 7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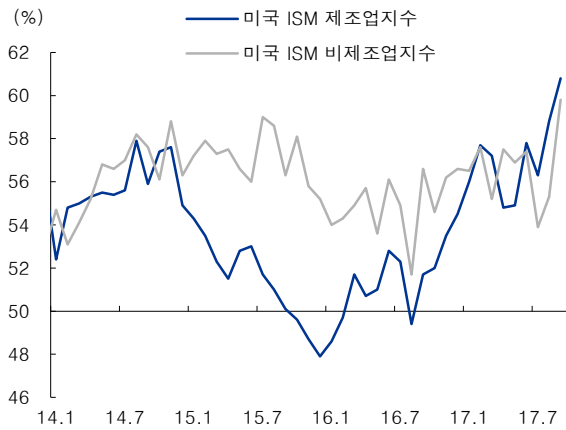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 9월 수출입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특히 수출의 경우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만에 최대 월간 실적을 기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주력품목 중심의 수요 호조와 작년 추석이 9월에 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올해 조업일수 +2.5일)가 긍정적으로 작용
- 다만 한미 FTA 문제와 미국 및 유럽의 긴축, 10월 긴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부담 요인으로 4분기 수출 증가세는 약화 예상

미국 9월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 60.8, 59.8

예상치 58.1, 55.5 / 이전치 58.8,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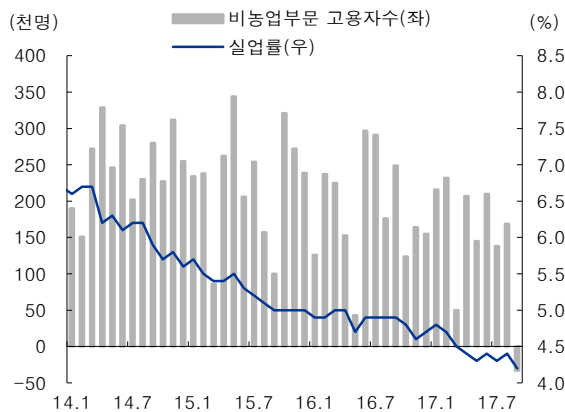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9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 모두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허리케인 피해 복구 기대와 쇼핑시즌 준비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 가격 항목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고용 항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침. 하지만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신규주문과 생산(기업활동)이 크게 개선된 점은 긍정적. 연준의 긴축 부담에도 양호한 국내 수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호조는 지속될 전망

미국 9월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3.3만명, 4.2%

예상치 8.0만명, 4.4% / 이전치 16.9만명,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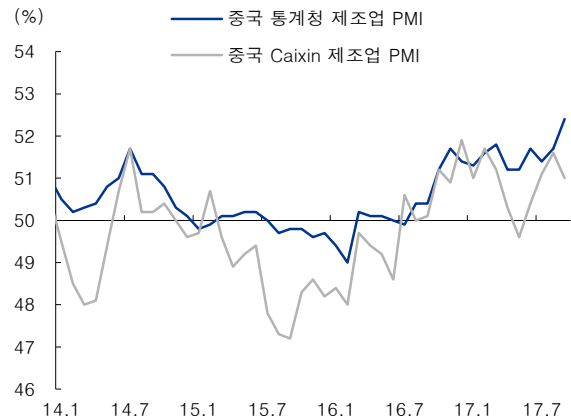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시장 예상과 달리 전월대비 감소.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 제조업은 0.1만명 감소했으며, 레저 및 숙박업(-11.1만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도 악화됨
- 반면 질적인 고용 지표는 개선됨. 실업률은 1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MoM 0.5%, YoY 2.9%를 기록. 양적 고용 악화가 일시적임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

중국 9월 통계청, Caixin 제조업 PMI 52.4, 51.0

예상치 51.6, 51.5 / 이전치 51.7,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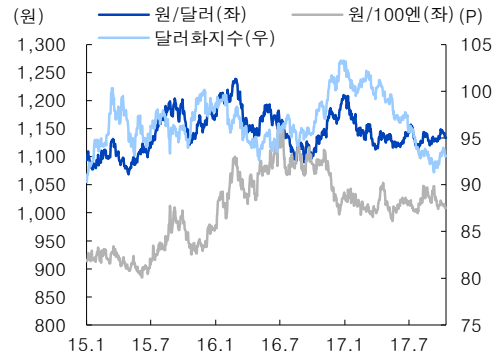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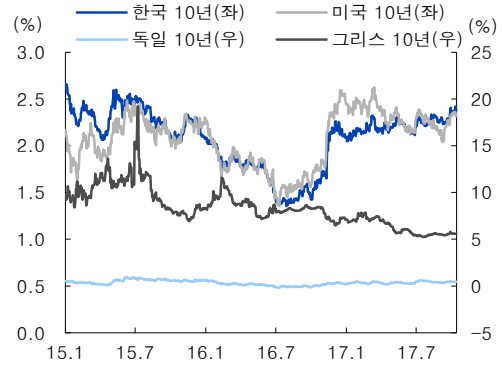
- 9월 제조업 PMI는 두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으나, 모두 확장 국면(50 이상)을 유지해 제조업 체감 경기는 양호하다고 판단됨
-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수요가 양호했던 가운데 통계청 PMI는 생산과 신규주문 항목이 모두 상승하며 5년 5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다만 통계청과 Caixin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구조조정의 영향이 나타남. 허위항목 중 고용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투입 및 산출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Economic & Marke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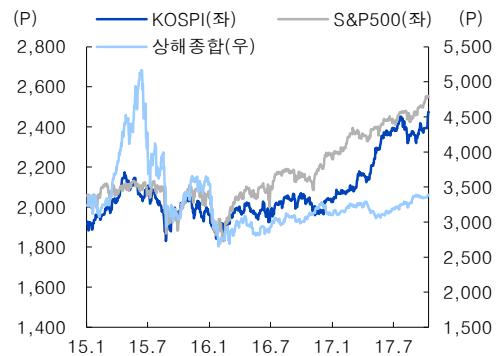
통화	현재	1W	1M	3M	YTD
달러화지수	93.11	-0.91	1.34	-2.77	-8.90
이머징통화지수	69.44	-0.29	-2.78	1.58	5.19
아시아통화지수	107.84	0.73	-0.50	1.48	4.76
원/달러	1,133.21	0.78	-0.38	1.04	6.41
원/100엔	1,009.19	0.60	1.36	-0.54	2.14
원/유로	1,345.44	-0.27	0.40	-2.28	-5.53
원/위안	171.97	-0.18	0.44	-2.29	0.96
달러/유로	1.18	0.86	-0.45	3.80	12.49
달러/파운드	1.33	1.50	0.39	2.50	7.47
프랑/달러	0.98	0.44	-1.16	-0.84	4.47
달러/호주달러	0.78	0.70	-2.07	1.16	8.50
엔/달러	112.27	0.34	-1.59	0.90	4.18
위안/달러	6.59	0.99	-0.79	3.04	5.43
헤알/달러	3.17	-1.20	-2.21	2.57	2.59



금리	현재	1W	1M	3M	YTD
한국 국고 3년	1.90	0.01	0.14	0.13	0.26
한국 국고 5년	2.10	0.02	0.15	0.14	0.29
한국 국고 10년	2.38	0.01	0.13	0.11	0.29
한국 회사채 3년(AA-)	2.37	0.01	0.16	0.17	0.25
한국 회사채 3년(BBB-)	8.54	0.01	0.15	0.14	0.24
미국 국채 2년	1.513	0.025	0.178	0.170	0.324
미국 국채 10년	2.318	-0.030	0.151	0.000	-0.127
일본 국채 10년	0.07	0.02	0.05	-0.02	0.02
독일 국채 10년	0.45	-0.01	0.04	-0.13	0.24
그리스 국채 10년	5.58	-0.02	0.13	0.22	-1.53
이탈리아 국채 10년	2.12	-0.03	0.09	-0.14	0.30
스페인 국채 10년	1.64	-0.06	0.04	-0.01	0.25
중국 국채 10년	3.68	0.06	0.06	0.10	0.62
중국 RP 7일	2.83	-0.61	-0.57	0.03	0.23



주가	현재	1W	1M	3M	YTD
KOSPI	2,474.76	4.31	4.85	2.71	22.12
KOSDAQ	666.54	2.66	1.13	2.12	5.56
S&P500	2,550.93	-0.04	2.18	4.41	13.94
다우	22,841.01	0.29	3.26	6.08	15.58
나스닥	6,591.51	0.09	2.13	5.28	22.45
상해종합	3,386.10	1.39	0.06	5.22	9.10
선전종합	2,023.36	2.46	1.42	7.13	2.75
항셱 H	11,500.34	0.91	2.80	7.71	22.41
STOXX 유럽600	390.28	-0.19	2.32	1.40	7.99
독일 DAX	12,982.89	0.11	3.66	2.82	13.08
일본 Nikkei225	20,954.72	1.59	5.48	4.25	9.63
대만 가권	10,711.44	2.35	1.70	2.40	15.76
인도 SENSEX	32,182.22	1.87	0.07	1.19	20.87
브라질 보베스파	76,659.80	0.09	2.85	18.24	27.28



원자재	현재	1W	1M	3M	YTD
RJ CRB	183.28	1.09	1.03	5.41	-4.80
LME 금속	3,234.70	0.26	1.88	13.98	21.62
BDI	1,433.00	3.69	6.62	66.82	49.12
WTI 선물	50.74	-0.10	5.20	11.54	-5.55
Dubai 현물	55.02	0.73	5.56	17.44	1.91
Brent 선물	56.40	-1.05	3.92	18.14	-0.74
천연가스 선물	2.99	2.19	-0.47	0.07	-19.79
금 현물	1,294.70	1.41	-2.09	6.33	12.83
구리 선물	312.05	2.43	3.48	16.57	24.55
알루미늄 3M	2,130.00	-1.66	0.38	12.11	25.81
밀	430.50	-2.33	2.62	-17.61	5.51
대두	992.00	2.45	5.06	-2.43	-0.45
NAND	2.98	0.00	0.00	1.02	16.86
DRAM	3.58	4.37	11.53	12.58	28.32

